

아프리카에 한국불교 희망 움튼다

학교건립 기금마련
선서화전 개막
KB금융·비구니회
보시금 기탁 이어져

아프리카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기 위한 선지식들의 글과 그림이 한자리에 모였다.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이 지난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탄자니아에 추진 중인 보리가람 농업기술고등학교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한 선서화(禪書畵)전 개막식을 가졌다. 전시회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근현대 선지식들의 글과 그림을 비롯해 유명 화백들의 한국화 등 500여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전시 첫날인 이날, 종단 중진 스님을 비롯해 교구본사 및 직역사찰 스님 등 150여명이 전시회장을 찾아 성황을 이뤘다. 전시회를 찾은 스님들은 1층 로비와 나무갤러리, 2층 국제회의장에 전시된 작품들을 둘러보며 큰 관심을 표했다.

이번 선서화전에 300여점의 작품을 기증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전시회를 통해 한국불교가 아프리카에 발을 깔고 씨를 뿌려 먼 훗날 부처님의 법문이 널리 퍼지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학교 건립 기금 마련에 부족한 부분을 함께 채워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안내까지 맡는 등 큰 관심을 표했다.

전시회는 오는 29일까지 진행된다. 구하·경봉·청담·해각·무불·석주·서용·월산·월하·해암·석경·지관스님 등 근현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선지식들의 작품을 비롯해 진제 종정예하, 덕승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스님,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지선스님의 작품 등 세간에 공개되지 않았던 스님들의 글과 그림 500여점이 전시된다. 이밖에도 한국화의 대가 의재 허백련, 심학 박승무, 윤보 김기창, 남농 허건, 아산 조병원 화백의 작품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개막식 후에는 윤종구 KB금융지주 회장이 6100만원을 탄자니아 학교 내 도서관 건립 기금으로, 전국비구니회장 명우스님이 중앙종회의원 및 전국비구니회 스님과 심심일만모은 기금 3000만원을 건립 기금으로 전달했다.

이경민 기자 kylee@bulgyo.com



아프리카 탄자니아 보리가람 농업기술고등학교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한 선서화전이 지난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개막했다.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선서화전에는 구하·경봉스님, 진제 종정예하 등 근현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선지식들의 작품 및 미공개 작품 500여점이 나와 발길이 물리고 있다. 신재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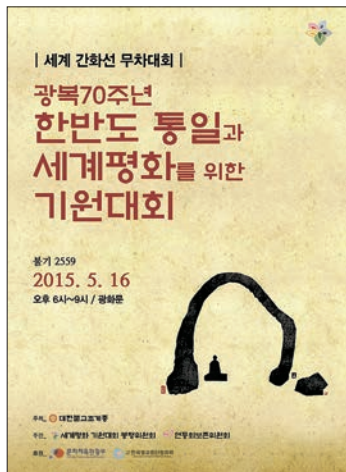
종정예하, 광화문서 어떤 법문 내릴까...

5월 16일 세계평화기원
간화선 무차대회는 물론
연등회도...관심 고조

본지 禪주제 매호 2개면

6회 연속 특별기획 '원성'

▶관련기사 8~9면



도들은 환희심에 차있다. 박승자 제7교구신도회장은 “평생 한 번 볼 수 있을까 말까한 종정예하를 뵈고 생생한 육신으로 범문도 듣게 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찬다”며 “이번 간화선 무차법회 참석을 계기로 평생 정법에 의지해 올곧은 부처님 제자로 살겠다”고 말했다.

진제 종정예하가 2012년 3월 불교계 최고 어른인 종정에 취임한 이래 세상을 향해 보여준 실천 메시지는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종정추대식에서 종정예하는 범어

를 통해 ‘참나’를 화두로 던지며 참선수행을 통한 굳은 정진과, 고통 받는 이웃을 자기 몸같이 보살필 것을 당부해 감동을 주었다. 같은 해 10월 미국 뉴욕으로 건너가 현지 종교지도자들에게 간화선(看話禪)을 소개하고 세계평화에 앞장설 것을 주문했다. 세월호 참사가 터졌을 때는, 사건 발생 사흘째인 4월19일 진도로 내려가 조계종 긴급구호봉사단을 격려하기도 했다. 종정예하의 이같은 행보는 이전 종정스님들에게선 보기 어려웠던 장면들이다. ‘부모에게 나기 전 어떤 것이 참 나던고’를 화두로 지구촌 평화와 간화선 세계화를 위해 힘써온 종정예하가 이번 법회에선 어떤 법문을 할지 기대감이 높다.

또 우리 사회 전반에 화합의 메시지를 가져다줄 이번 기원대회를 사회 안팎에서도 더욱 주목하는 분위기가 있다.

같은 날 본격적인 간화선 무차대회에 앞서 펼쳐지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도 어느 해보다 뜻 깊게 치러질 예정이다. 연등회는 1300년 넘게 이어져 온 우리 고유문

화로 부처님 같이 마음과 세상을 밝히기를 기원하며 등을 밝히는 축제이다. 사회가 힘든 시기에는 마음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등 세계인의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연등회는 전 국민의 참여 속에 한반도 평화와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기원의 장이 될 전망이다. 연등회 깃발을 선두로 위풍당당한 모습의 각종 장엄등과 그 뒤를 따르는 수만 개의 행렬등에는 나와 이웃의 행복을 바라는 서원이 담길 것이다. 연등행렬을 비롯해 전통등 전시, 민속행사,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로 함께 진행된다.

제10교구본사 은혜사 주지 돈관스님은 “지구촌 평화와 한국불교 위대한 자산인 간화선 세계화를 위해 역량을 세운 종정예하의 그 뜻이 고귀하다”며 “지역의 많은 분들이 종정예하를 친견하고 법문을 들을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본지는 이번 3100호(4월25일자)로부터 한국 선불교의 역사와 역대 선사 스님들의 법문 등 선(禪)을 주제로 한 특별기획을 총 6회에 걸쳐 지면에 소개한다.

홍다영 기자 hong12@bulgyo.com

비구 비구니 212명 배출

제35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 회향

제35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 회향을 통해 212명의 스님들이 배출됐다. 지난 15일 제8교구본사 직지사에서 열린 구족계 수계산림 회향식에서 비구 140명, 비구니 72명 등 총 212명의 스님이 구족계를 수성했다. 이 자리에서 전계대화상 성우스님은 종단 정식 스님으로 첫발을 내딛는 수행자들에게 계첩을

수여한 뒤, 범어를 통해 “여러분 앞길에 부처님 가르침이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목숨을 바쳐 수행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들은 가사와 발우를 받고 한 마음으로 수행과 전법으로 불조의 해명을 이어 불법을 흥포하는 수행자가 되겠다고 발원했다. 임태규 기자

해인총림 방장 원각스님

5월 7일 추대법회 봉행

해인총림 해인사 제9대 방장 벽산당 원각스님(사진) 추대법회가 오는 5월7일 대적광전에서 열린다. 해인총림 방장추대위원회(공동위원장 선해·원택·항적스님)는 지난 20일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이같은 일정과 함께 “종단 원로와 소임자를 비롯해 정계 제계 등 각계 인사



들이 초청 대상”이라고 밝혔다. 해인총림은 이에 앞서 지난 10일 임회를 열어 해인사 주지 선

해스님,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스님, 전 중앙종회의장 항적스님 등 3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방장추대위원회를 구성했다. 김중찬 기자 kimjc00@bulgy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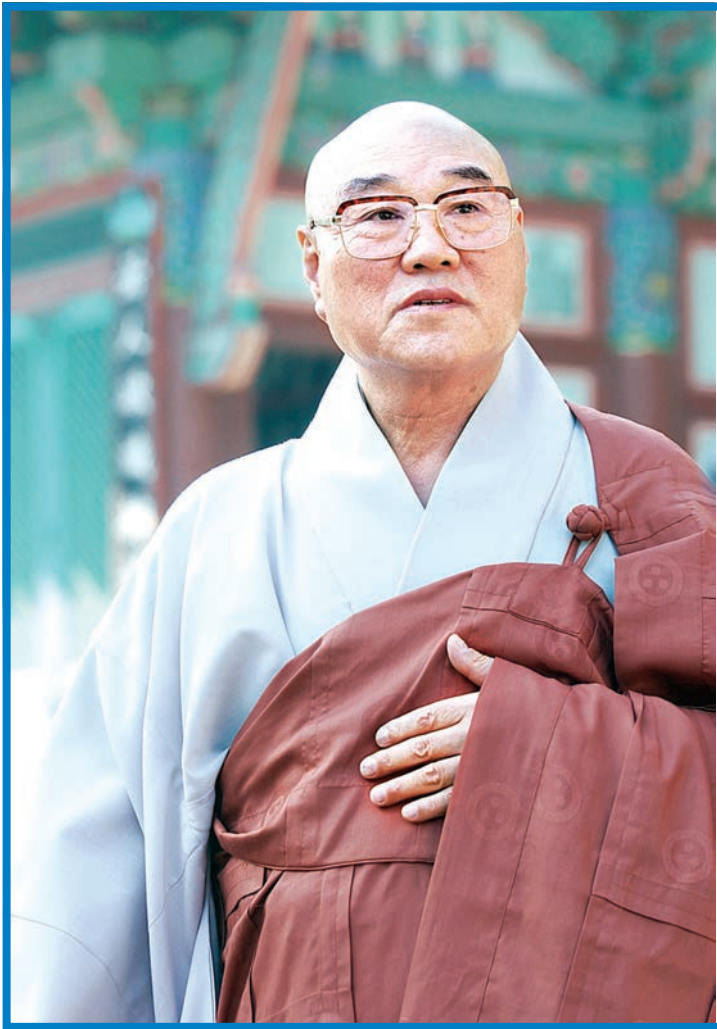
더욱 알차고 풍성한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불교신문은 1960년 창간 이래 56년간 '한정의 불교신문' 한사람의 포고사라는 전범의 깃발을 높이 휘날리며 독자 여러분과 함께 함께 걸어왔습니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불교전문지로 자리매김한 불교신문은 더욱 알차고 풍성한 콘텐츠를 약속하면서 오는 5월1일부터 월 구독료를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합니다.

구독료 인상은 2004년 1월 이후 11년4개월만입니다. 지난 11년여 간 불교신문은 독자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치솟는 물가에도 불구하고 가격인상 요인을 경영합리화와 내실경영으로 감내해왔습니다. 그러나 신문 원자재 및 부자재 값 인상과 인쇄비, 우편요금 등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구독료가 제작원가에 훨씬 못 미치고 있어 2004년 이후 동결해왔던 구독료를 현실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반백년이 넘는 긴 세월동안 불교신문을 애독하여 주신 사부대중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앞으로도 불교신문사 임직원 일동은 정법당간(正法幢竿)의 기치를 내걸고 한국불교 최고의 불교전문지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불철주야 정진하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신문



동남아 오지 학교건립 및 장학금 조성을 위한

干湖月叙 禪師 傘壽展

전시기간 _ 2015년 4월 29일(수)~5월 5일(화)

전시장소 _ 인사동 한국미술관 (T. 02-720-1161)

개막식 _ 2015년 4월 29일(수) 오후 3시



|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원로회의
| 주관 | 천호희망재단
|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동국대학교